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이제는 이상기온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시절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처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기도 전에 이미 달라진 기후로 인해 환경변화에도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에서도 날씨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듣노라면 하늘 아
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세족식과 예수영접모임>



코로나-19를 지나고 마피아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치
안속에서 모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을 기억하며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형제,자매
의 발을 서로 씻겨주며 함께 주님을 섬기다 주님 품에 먼
저 간 형제들을 떠올리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주어질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리움과 아쉬
움 중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영혼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허락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8명이 13주간의 성경공부(Vida Vital)를 통해 구원을
비롯하여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믿
음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
별히 카르멘 구티에레스(Carmen Gutierrez)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
하고 평생을 카톨릭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원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날 & 아버지날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며 가르쳐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
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특별히 멕시코의 수많은 역기능 가정들을
바라볼 때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5월과 6월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집중하는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어 감사가 있습니다. 어
머니날이 있는 5월에는 주변과 성도들의 가족 중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특별한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영혼구원의 기쁨이 있
었고, 아버지날이 있는 6월에도 믿지 않는 아버지들을 초청해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도시 외곽에 개척한 교회를 현지사역자에게 이양하는 일을 준비해가면서 인디오마을에 주신 새로운 소원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가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마음에 주신 소원을 좇아 가지고 있는 작은 비용으로 헤수스 마리아 코르테(Jesús María Cortes)의 땅을 계약하게 하셨는데, 귀한 헌신의 손길을 통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4월부터 첫 삽을 떠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칠게 자라난 수풀을 정리하고 땅을 일구며 선교센터의 1차 공사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기둥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매번 인디오마을에서의 공사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어렵지만, 이곳은 특히 땅 밑에 큰 돌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 힘들게 작업하고 있지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인디오마을에 들어가 텐트를 치며 잠을 청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요일에 돌아오고 있는데, 우기철을 맞이하면서 천둥을 동반한 많은 비로 인해 텐트에 흘러내리며 들어오는 비를 닦아내며 젖은 옷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일을 경험할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고단함이 느끼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인디오마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 되어가는 많은 이들을 위한 선교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선교지에서의 삶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며 배워가는 기쁨이 있는데, 순종이야말로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성품임을 배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물질로 섬겨주시는 믿음의 동역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1)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 2) 인디오 마을에 세워질 선교센터의 1차 공사인 예배당이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가 채워지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 3)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인디오마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영혼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로 세워져 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 4) 하비엘&카르멘 사역자 부부와 콘스탄시오&레티 사역자부부의 영적리더십과 영육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 5) 가족의 건강과 안전, 자녀들 학업과 진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4년 8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